

IBKS CARBON FINANCE

# Invitation to Better Karbon Story

---

WEEKLY REPORT  
VOL.4  
2025.07.07



IBK기업은행 금융그룹

IBK투자증권

# TOP HEADLINES

- EU, 2040년 온실가스 90% 감축 목표, 국제 크레딧·탄소 제거 포함
- UK ETS, '1-in, 1-out' 방식으로 고품질 탄소 제거 (CDR) 포함
- 튀르키예, 탄소배출권거래제도 법제화, EU CBAM 대응 본격화
- (Special) MSR 이란?
- EU, CBAM 본격 시행 앞두고 철강·알루미늄 등 수출기업 지원 예고
- 베트남, 2026년부터 CORSIA 참여 발표
- 튀르키예, 2030년까지 항공 탄소배출 5% 감축 목표, SAF 의무화
- JP모건, 탄소배출권 토큰화 시범 사업 착수
- 싱가포르,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 사상 최고치 기록



IBK기업은행 금융그룹

**IBK투자증권**

# EU, 2040년 온실가스 90% 감축 목표, 국제 크레딧·탄소 제거 포함

EU 집행위원회가 2040년까지 온실가스 순배출을 1990년 대비 90% 감축하는 입법 초안을 발표함.

해당 목표의 일환으로 EU는 파리협정 Article6 기반의 국제 감축 크레딧을 최대 3%까지 허용할 계획. 다만, 이는 EU ETS에는 포함되지 않으며, 감축이 어려운 산업 부문을 위한 유연성 수단으로만 사용될 예정

영구적 탄소 제거 기술은 EU ETS에 포함될 계획으로, 구체적 적용 방식은 향후 결정될 것

EU 집행위는 ‘감축 목표 달성은 EU 내부 감축이 기본 원칙’이라는 입장을 강조하며, 외부 크레딧 사용은 엄격한 기준(추가성, 상응조정, 투명성 등)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고 밝힘.

동 초안은 EU 회원국 이사회 및 유럽 의회의 승인 이후 확정될 예정

# UK ETS, '1-in, 1-out' 방식으로 고품질 탄소 제거 (CDR) 포함

영국 정부가 배출권 거래제 (UK ETS)에 고품질의 영구적 탄소 제거 (CDR)를 포함할 계획을 발표함. 초기 정책은 '이산화탄소 1톤 제거 시, 배출권 1톤 삭제 (1-in, 1-out)' 원칙을 따를 예정

이는 과도기적 안전 장치로서 기존 감축 목표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제거로 인해 배출이 늘어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 해당 내용은 탄소의 감축과 제거를 별도로 관리하겠다는 정책 기조에 기반한 것이나, 향후 ETS 내에서 탄소 제거와 감축을 통합하여 인정하는 방향도 고려 중이라 밝힘.

CDR이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영구성'이 핵심이므로, MRV (모니터링·검증·보고)체계의 중요성을 강조. 다만, CDR의 영구성 및 신뢰성 확보를 위한 중앙기관(탄소 중앙은행)의 개입은 배제

동 방침은 현재로서는 파리협정 6조 기반의 국제 CDR 크레딧을 받지 않고, 국내 제거만을 인정할 계획. 이는 영국 고유의 기준 정착 및 국내 시장 안정성을 위한 조치로 해석

한편, 비용이 높은 기술적 제거 방식 (BECCS, DACCS 등)을 활성화 하기 위해 정부가 '차액계약제도 (CFD)'를 활용해 시장을 보조할 가능성도 언급

# 튀르키예, 탄소배출권거래제도 법제화, EU CBAM 대응 본격화

튀르키예 의회가 탄소배출권거래제도 (ETS) 도입을 위한 기후법을 최종 통과시킴. 이는 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 (CBAM)에 대응하기 위한 목적으로, ETS는 2025년부터 시범 운영, 첫 3년은 전환 기간으로 운영될 전망

튀르키예 ETS는 에너지·시멘트·철강·알루미늄·수소 등 5개 고배출 산업군을 대상으로 적용되나 초기에는 100% 무상할당이 적용, 향후 경매 방식으로 전환될 계획. 초기 예상 배출권 가격은 톤당 12 유로 (약 2만 원) 수준

튀르키예는 배출권 시장의 안정성을 위해 EU의 **시장안정화제도 (MSR)**와 유사한 제도 도입을 도입하고, ETS 수익은 저탄소 기술, 에너지 효율화, 탄소 포집 기술 등에 활용할 예정. 동 법안에는 CBAM 대응을 위해 튀르키예 내 제품의 탄소배출량 측정 기준 마련에 대한 내용도 포함

금번 조치는 EU로 수출하는 튀르키예 기업들의 탄소비용 부담 완화를 위한 조치로, 향후 수출 경쟁력 방어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

# MSR(Market Stability Reserve)



## MSR

### (Market Stability Reserve, 시장안정화제도)

- 탄소배출권 시장의 공급과잉 또는 공급부족 문제를 자동으로 조절하는 가격안정화 제도
- 목적:
  - 탄소시장의 공급-수요 균형 유지
  - EUA 가격의 급변 방지 → 감축 유인을 유지
  - 시장 신뢰도 제고
- 매년 5~6월 EU는 TNAC (Total Number of Allowances in Circulation, 유통 중인 총 배출권 수)를 발표
- 이 TNAC 수치를 기준으로 MSR이 작동



## MSR 작동 원리

8억 3300만 개 ≤ TNAC ≤ 10억 9600만 개



MSR에서 배출권을  
풀어서 경매에 공급



잉여의 24%를 경매에서 제외,  
MSR에 보관

MSR에 쌓인 배출권이 4억 개 초과 시,  
초과분은 매년 자동 폐기 (영구적)

# EU, CBAM 본격 시행 앞두고 철강·알루미늄 등 수출기업 지원 예고

EU 집행위원회는 탄소국경조정제도 (CBAM)로부터 확보된 수익을 활용해 탄소비용 부담으로 경쟁력이 약화될 수 있는 유럽 내 수출 기업들에 대한 보상 제도를 연내 입법화할 것이라 밝힘.

해당 제도는 철강, 알루미늄, 비료, 수소 등 기존 CBAM 적용 산업이 주 대상이며, 무상 배출권이 단계적으로 축소됨에 따라 이에 비례한 보상이 지급될 예정. 다만, 위원회는 장기적 탈탄소화 이행 약속이 전제되어야 함을 밝힘.

보다 구체적인 지원 방안은 2025년 말까지 입법화될 예정이며, 초기 일정 기간 동안 시행된 후, 2027년에 재검토될 것. 동시에 외국 기업이 제도를 악용하거나 우회하지 못하도록 추가적인 감시 및 규제 방안도 함께 마련될 방침

EU 집행위는 2025년 약 7,000만 유로(약 1,125억 원) 규모의 보상을 예상

# 베트남, 2026년부터 CORSIA 참여 발표

베트남 정부가 2026년부터 국제항공 탄소 상쇄 및 감축 제도 CORSIA에 참여한다고 발표. 이를 위해 베트남 민간항공청 (CAAV)은 ICAO (국제민간항공기구)에 정식 등록을 완료

CAAV는 CORSIA 참여를 위해 최근 몇 년간 배출량 MRV 시스템 구축, 2019~2024년 데이터 제출, 민간 항공의 연료 사용 소비 및 이산화탄소 배출에 대한 규정을 도입하는 등 규정 준수를 준비해왔다고 밝힘.

2027년부터 의무적 참여 단계로 전환될 예정인 CORSIA는 국제항공의 탄소배출량을 2019년 기준 수준으로 제한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항공사는 기준 초과 배출량에 대해 탄소상쇄 크레딧을 구매해야 함.

현재까지 세계 항공 수요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미국·중국은 참여 여부가 불확실한 상황. 베트남은 제도 정착 초기부터 적극 대응하는 국가 중 하나로 평가

국제항공운송협회 (IATA)에 따르면, 2025년 1분기 항공 트래픽 데이터를 기준으로 했을 때 CORSIA의 수요는 최대 1.6억 건에 달할 수 있다고 밝힘. 탄소시장 전문 데이터 분석기업 Allied Offsets는 CORSIA 적격 크레딧 가격을 2027년까지 톤당 14~16달러(약 1.9만~2.2만 원)로 전망

# 튀르키예, 2030년까지 항공 탄소배출 5% 감축 목표, SAF 의무화

튀르키예 민간항공청은 2030년까지 항공 부문의 탄소배출을 5% 감축하기 위해 항공사와 항공유 공급업체에 지속가능 항공 연료 (SAF) 사용을 의무화할 것을 발표

이는 2027년부터 의무화되는 UN 국제민간항공기구 ICAO의 CORSIA를 준수하기 위한 조치로, 국제 항공편을 운항하는 항공사는 감축 목표 5%를 달성할 수 있도록 충분한 SAF를 사용해야 하며, 터키의 항공유 공급업체 또한 해당 목표 달성을 위해 SAF를 조달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

민간항공청은 매년 3분기 말 이전에 최소 배출 감축 목표치를 발표 하고, 항공사 및 항공유 공급업체가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벌금을 부과할 것이라 밝힘. 또한 국제선 항공편에 필요한 SAF의 90%를 터키 내에서 급유하게 함으로써 탄소 감축 실적을 자국에 귀속시킬 계획

튀르키예 정유사는 Tupras는 신규 설비 건설을 통해 연간 40만 톤까지 생산량을 확대할 것이라 발표, 튀르키예 바이오연료 업체 DB Tarimsal Enerji는 10만 톤 규모의 SAF 생산을 계획 중

# JP모건, 탄소배출권 토큰화 시범 사업 착수

글로벌 투자은행 JP모건 체이스가 S&P Global, Ecotrust Canada, 블록체인 기업 Korems와 협력해 '탄소배출권 토큰화 시범 프로젝트'를 시작

해당 프로젝트는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 배출권의 생성부터 거래, 사용까지 데이터의 전 생애주기를 추적하여 신뢰성 및 투명성 제고를 목표로 함. 디지털 MRV 기능도 지원 가능

S&P Global의 배출권 정보 관리 시스템, Korems의 블록체인 기술, Ecotrust의 배출권 등록 및 관리 시스템이 핵심 인프라로 사용되는 동 프로젝트의 주요 목표는 디지털 MRV 및 토큰화 기반 배출권 거래 인프라 개발

JP모건은 이 기술을 바탕으로 금융기관 및 투자자 맞춤형 탄소시장 인프라 구축을 추진할 계획

Verra, Gold Standard 등 주요 탄소 레지스트리도 디지털 전환을 검토 중

# 싱가포르,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 사상 최고치 기록

싱가포르의 2025년 5월 전력생산 중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이 2.58%를 기록하며 사상 최고치를 경신. 이는 자국 내 태양광 발전 가속과 국경 간 재생에너지 전력 수입이 확대된 결과

싱가포르 국가전력시장 (National Electricity Market of Singapore) 자료에 따르면 5월 국내 태양광 발전량은 2024년 3월 이후 가장 빠른 속도로 증가했으며, 재생에너지 전력 수입도 3개월 연속 늘어 2년여 만에 최고치를 기록

싱가פור는 2035년까지 전체 전력 수요의 약 3분의 1에 해당하는 6GW를 재생에너지 수입으로 충당할 계획. 싱가포르는 현재 200MW 규모의 라오스-태국-말레이시아-싱가포르 (LTMS) 프로젝트와 말레이시아 국영 전력회사와 추진 중인 50MW 규모의 에너지 교환 ENEGEM 시범 사업 총 두 건의 국경 간 전력 거래를 운영 중

# IBKS 탄소금융본부 사업

## 탄소배출권

### ■ 규제 탄소배출권 트레이딩

- 국내 탄소배출권 장내 거래(KRX)
- 국외 탄소배출권 현물 거래(EU, 중국 등)

### ■ 자발적 탄소배출권 트레이딩

- VERRA, GS 등 매매
- 비규제 글로벌기업 대상 배출권 공급

### ■ 국내외 탄소배출권 사업개발

- 규제 및 자발적 시장 통용 가능 국내외 배출권 사업 개발 및 배출권 확보

## 환경에너지 파생상품

### ■ 에너지·원자재 선물 거래

- 탄소시장 유관 종목 개발 및 제공
- 원유, 납사, 곡물, EU배출권 등

### ■ 탄소배출권 펀드 개발 및 운용

- 업종별 특화 탄소배출권 펀드 상품화
- 국내외 탄소배출권 펀드 참여

### ■ 신재생에너지 인증서 조달

- PPA Offtaker / Spot REC 중개 & 주선
- 국내 발전소와 글로벌 RE100 기업 연계

## 탄소 금융조달

### ■ 구조화 상품 개발 및 중개

- Clean-Tech 기업&기술&설비 투자
- 주식,채권,원자재 등 파생결합분야 확대

### ■ 친환경 자산개발 PF

- 친환경 건축물, 신재생에너지 발전소 등
- 스마트팩토리, 친환경공정설비 도입 등

### ■ ESG 특화 벤처 투자

- K-Taxonomy 기반 평가 및 금융 제공
- 기업 성장 동력 & Value & 수익 확보

## ■ 유의사항

- 투자자는 금융투자상품에 대하여 IBK투자증권으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투자 전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금융투자상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지 않습니다.
- 금융투자상품은 투자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그 손실은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 수수료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IBK투자증권 홈페이지 등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IBK투자증권 준법감시인 심사필 제2026-20호  
(2026.03.17 ~ 2027.03.16)

**IBK투자증권 탄소금융부**  
**carbon@ibks.com**



IBK기업은행 금융그룹

**IBK투자증권**